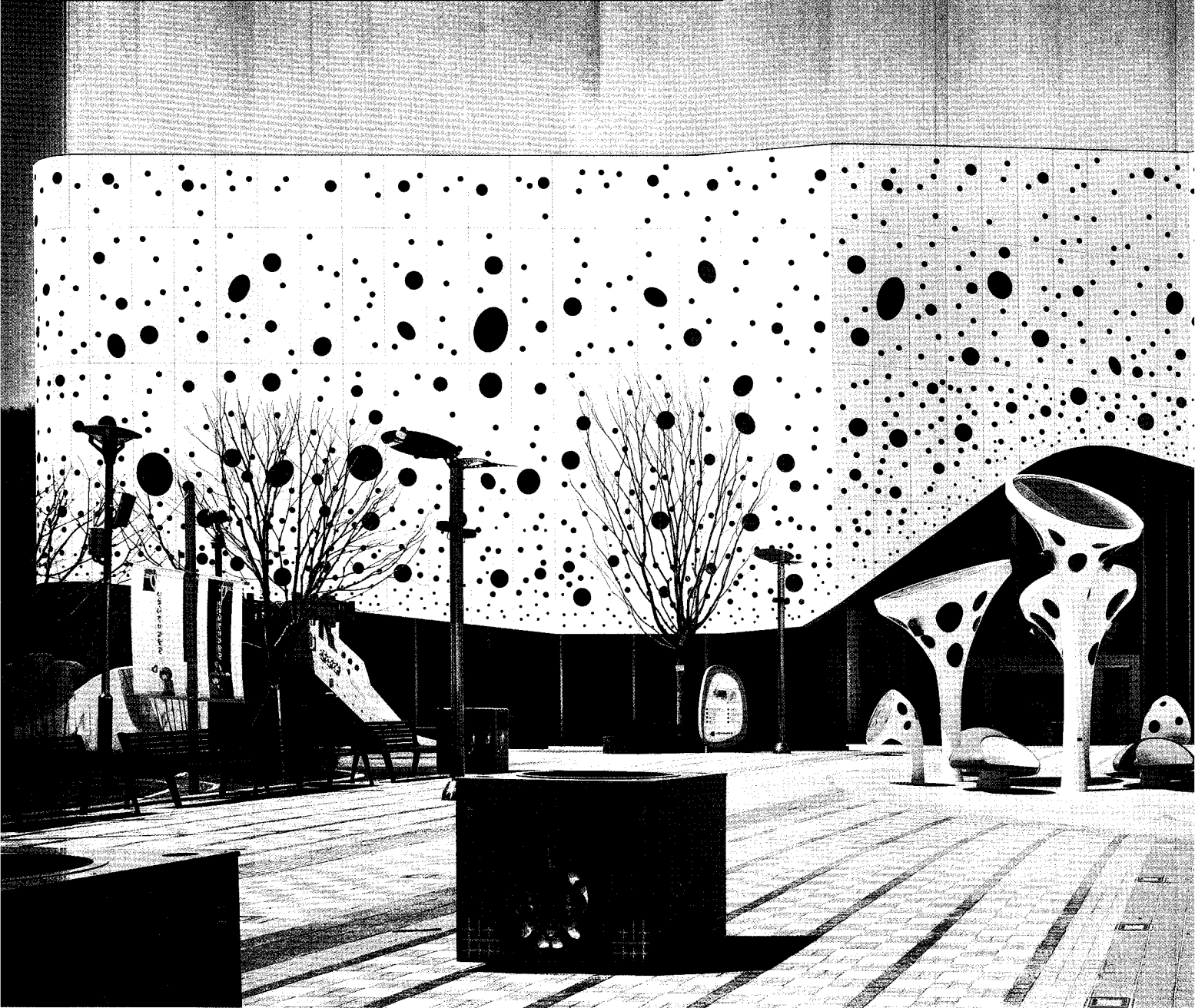



인천 어린이 과학관 Incheon Children Scienc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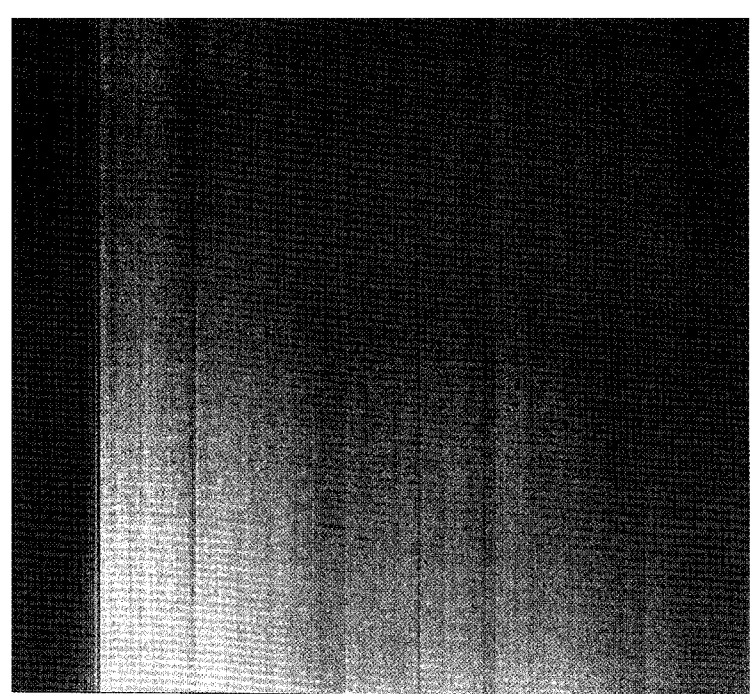
· 설계자 : 윤세한(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동부건설(주) · 건축주 : 인천광역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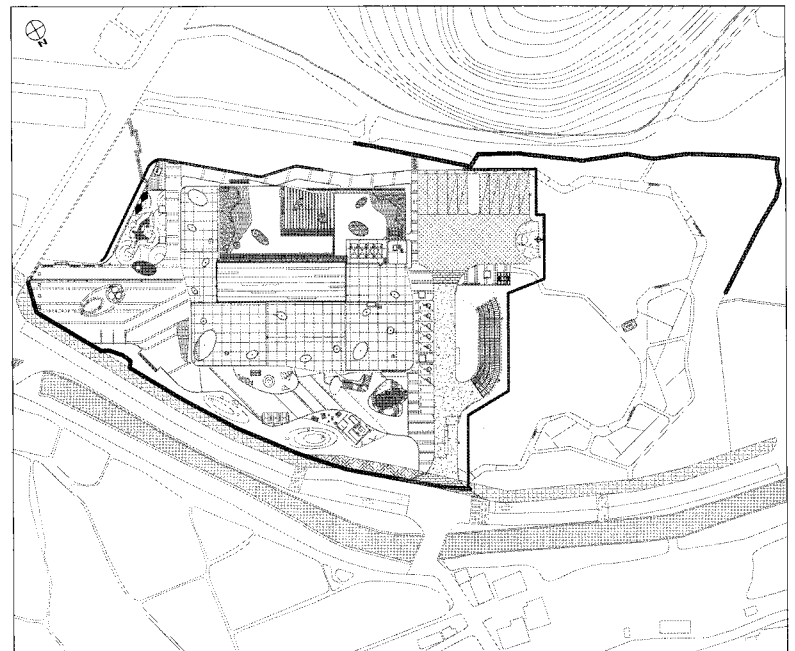
인천 어린이 과학관은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계양산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 과학관을 표방하며 10여 년간 인천시가 노력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따라서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위치한 대지적 맥락과 어린이와 과학 전시라는 주사용자와 프로그램적인 맥락에 착안하여 '어린이의 꿈을 담은 스펀지'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스펀지'라는 개념은 건축, 전시, 조경, 인테리어 등 통합적인 환경을 만드는 키워드로서 모든 디자인의 분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스펀지'의 개념적 전개는 Dream Icon, Eco Icon, Community Icon 그리고 Funny Icon의 네 가지 Icon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스펀지'의 구현을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친근하

고 말랑말랑한 건물 형태와 불규칙적이고 독특한 타공 입면(Dream Icon)을 구성하였으며,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와 소통을 하기 위해 입체적 경향이 가능한 다양한 옥외 공간(Eco Icon)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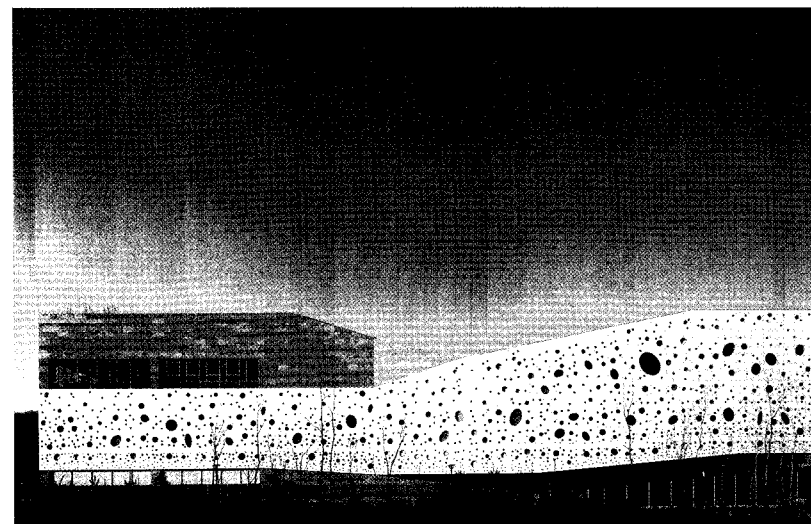
또한 대지의 흐름이 건물의 내외부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도록(Community Icon)하였고, 어린이들이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전시관을 매개하는 중앙홀에 다양한 조형물과 이벤트, 볼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Funny Icon)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기며 체험하는 전시과학관으로서 인천을 인식하는 랜드마크(Landmark) 중 하나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 외 9필지	건축면적 4,287.39㎡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향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연면적 14,998.06㎡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과학관)	건폐율 19.77% (형질변경면적 적용 : 19.77%)
대지면적 21,688㎡(형질변경면적 : 11,982㎡, 형질변경외면적 : 9,706㎡)	용적률 44.15% (형질변경면적 적용 : 79.91%)
	규모 지하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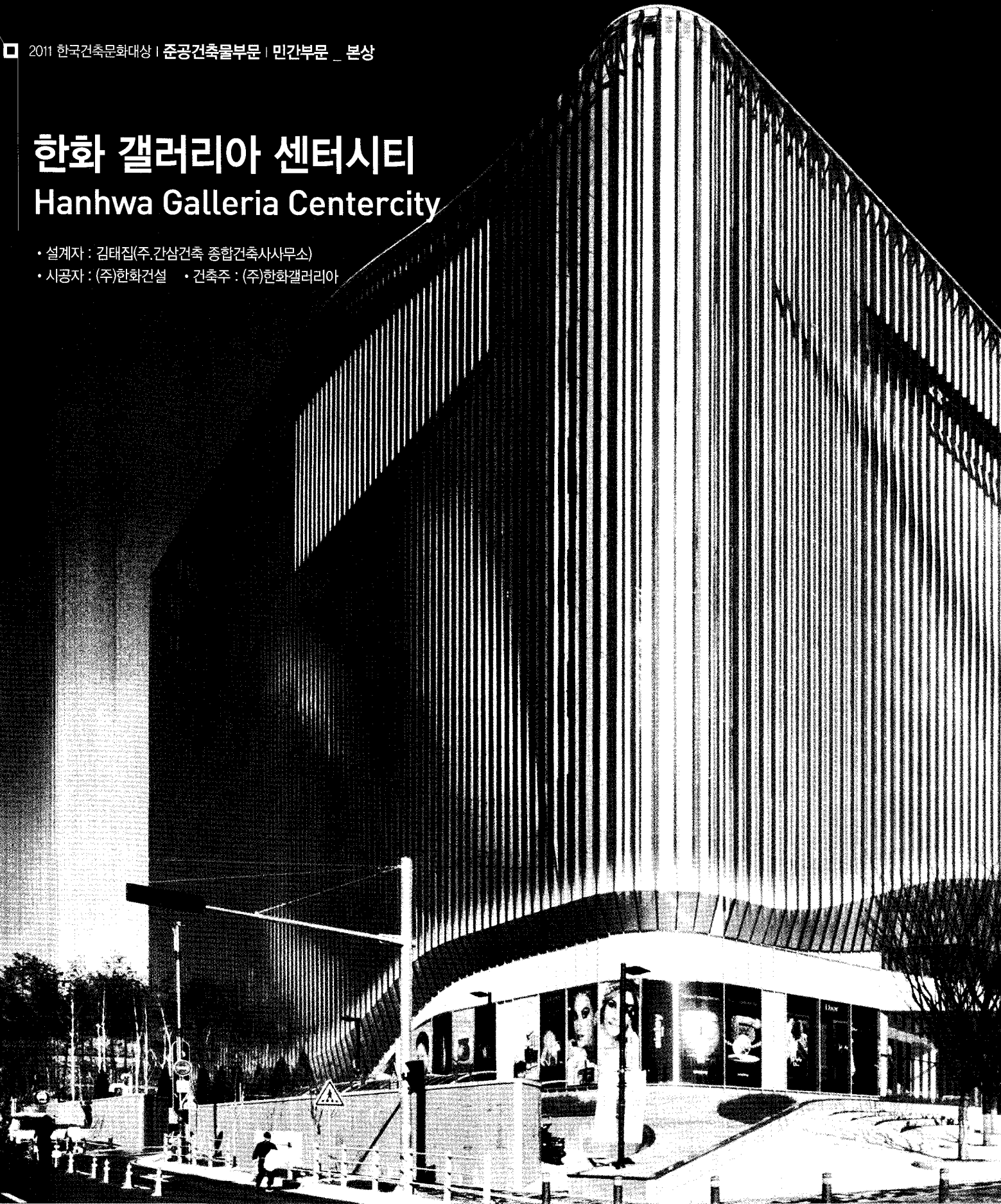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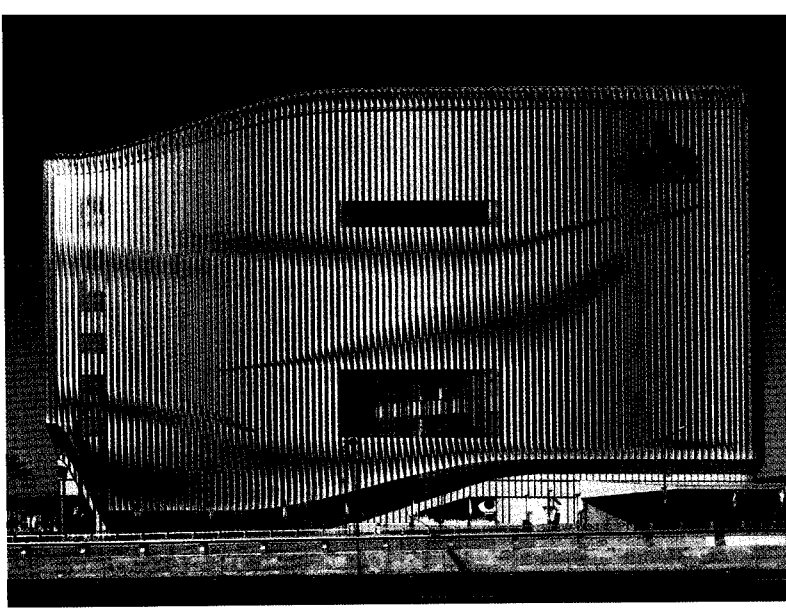
한화 갤러리아 센터시티 Hanhwa Galleria Centercity

- 설계자 : 김태집(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한화건설 • 건축주 : (주)한화갤러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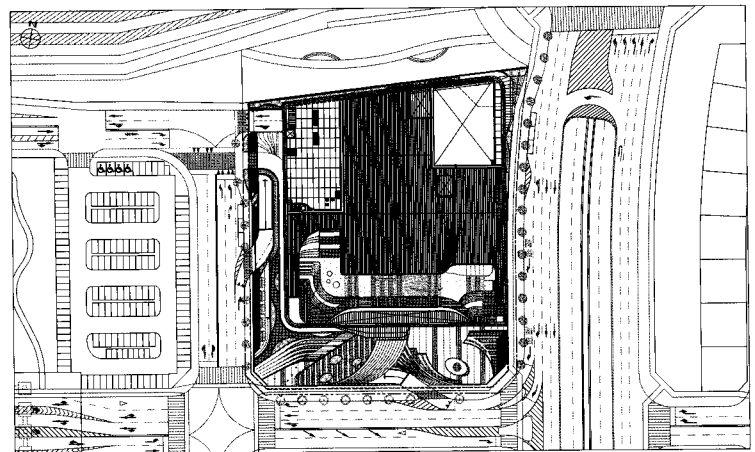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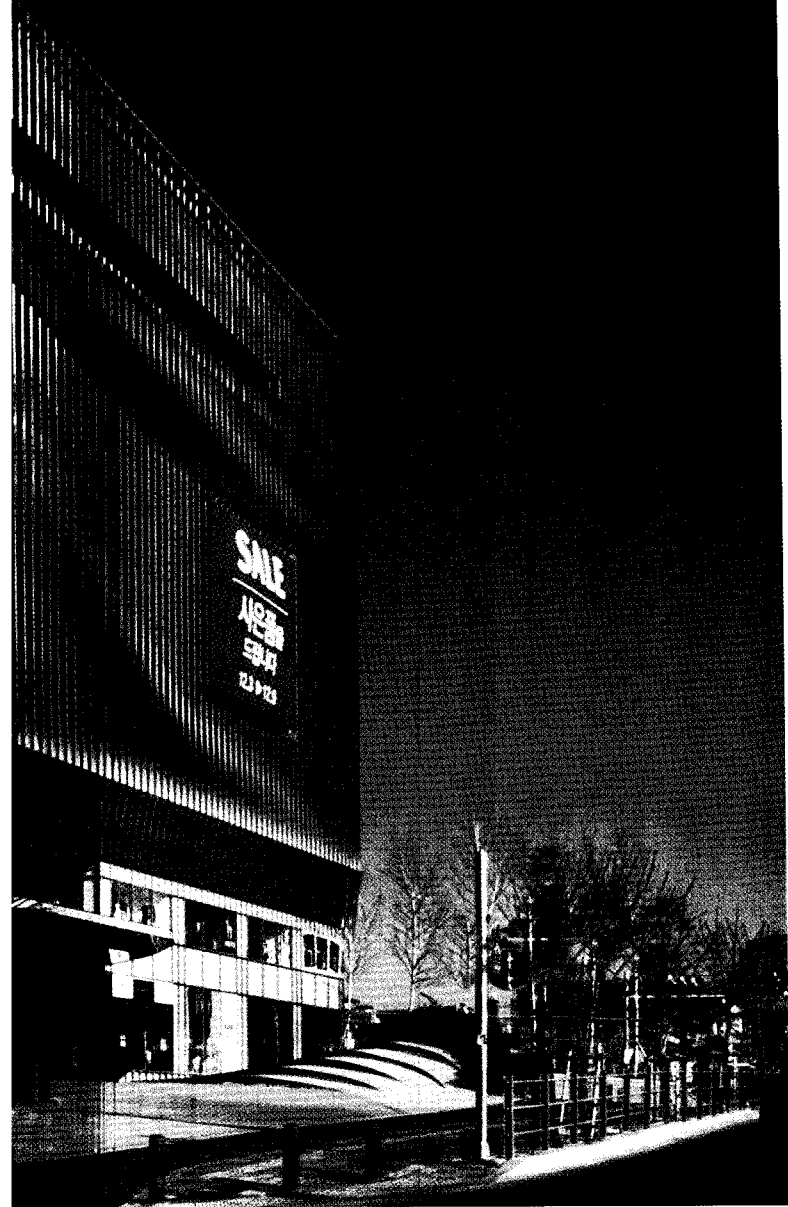


갤러리아 센터시티의 중요한 건축 테마는 역동적 흐름으로 건물 내외부 모두에서 드러난다. 물결무늬 효과, 특수 조명 및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백화점 외관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함으로써 전면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게 했다. 각기 다른 테마를 가진 4개의 내부 클러스터는 외부로 투영되어 백화점 내외부 공간의 조화를 보여준다. 건물 외관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디자인됐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 위에 삼각 형태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해 2개의 레이어를 갖는 더블 스킨 파사드를 만들었다. 외측 프로파일과 비스듬히 기울어진 내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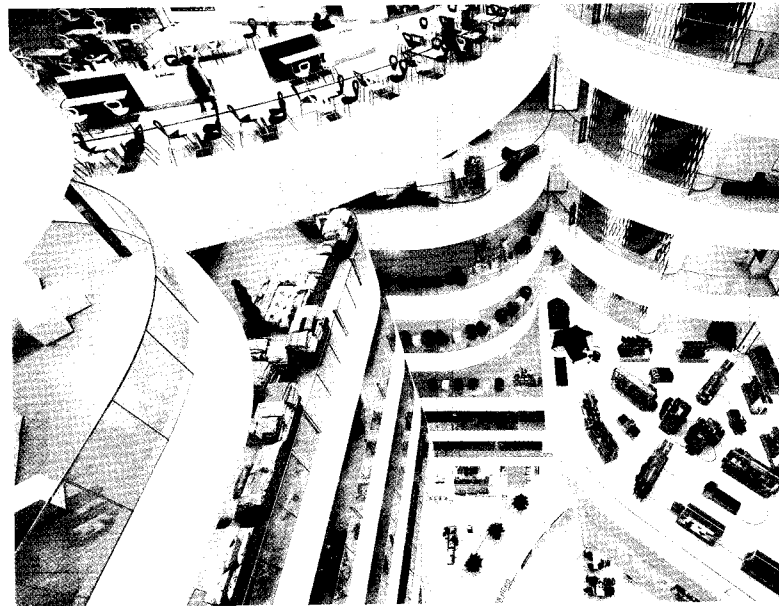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겹쳐 물결무늬가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파사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외관은 낮에는 단색 반사체지만 밤에는 다채로운 색의 빛의 물결이 파사드 전체를 덮는다. 조명은 더블 스킨의 파사드가 부각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소한의 조명기구로 최상의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고자 했다. 특수 설계해 맞춤 제작한 조명기구는 외측 파사드의 수직 프로파일 안쪽에 설치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조명기구는 내측 파사드 표면의 수직 프로파일 사이에 빛을 투영시키며, 파사드의 물결 위치에 따라 RGB 또는 백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521031일원	연면적 110,122.70㎡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61.58%
용도 판매시설(백화점)	용적률 496.26%
대지면적 11,235.00㎡	규모 지하 6층, 지상 10층
건축면적 6,918.3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배치도



색광을 낸다.

백화점 내부는 긴 기둥에 원형의 플라토(plateau)를 적층시킨 것이 특징이다. 2~3개 층이 묶여 형성된 클러스터가 적중되며, 휴게 공간인 플라토를 만든다. 플라토는 프로펠러가 공간 안에서 회전하는 형상으로 지상 아트리움부터 옥상 테라스까지 건물 내부 전체에 걸쳐지며 자연스럽게 고객들의 흐름을 만든다. 또한 중심부의 아트리움과 함께 내부 공간에 빛을 유입

시키고 조망의 기회를 제공한다. 백화점 내부 공간이 공간적·시각적으로 연결되고, 진열 상품이 아닌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각 층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공공 영역은 중앙 보이드 쪽으로, 주변 영역은 매장 쪽으로 집중되도록 계획했다. 중앙 보이드에 가까워질수록 천장의 조명 스트립이 넓어지면서 곡선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천장, 레일 디자인과 함께 중앙의 보이드 공간은 빛을 발하며 건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Samsung Raemian Eastpalace

• 설계자 : 김관중(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삼성물산(주)
• 건축주 : (주)코레드하우징



삼성 래미안 이스트팰리스는 기존 노후화된 가구 단지를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도시 개발사업으로서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집합주택 계획의 기본이 되는 밀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복성과 획일성을 어떻게 탈피하는냐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배치, 평면, 입면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최적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주거 단지를 추구했다. 주변 광고산의 자연을 최대한 유입하고 총 5개 블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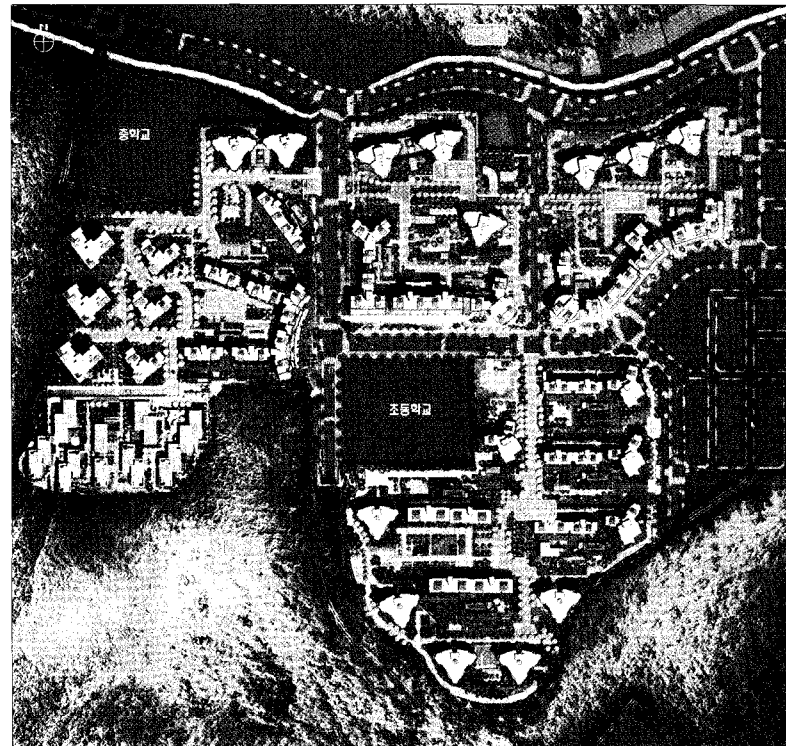
나누어진 대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문화의 중심을 계획했다. 이는 생활, 문화, 교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 커뮤니티 시설로,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각 블록의 마을마당과 연계된다. 단지는 입지와 전망 등 각 대지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주동 형식을 개발하여 배치했다. 테마별로 구성된 타워형, 일반형, 전원형 주동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용인 동천지구는 새로운 배치, 다양한 평면, 차별화된 입면 및 커뮤니티 계획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587,894㎡
규모 지하 2층, 지상 3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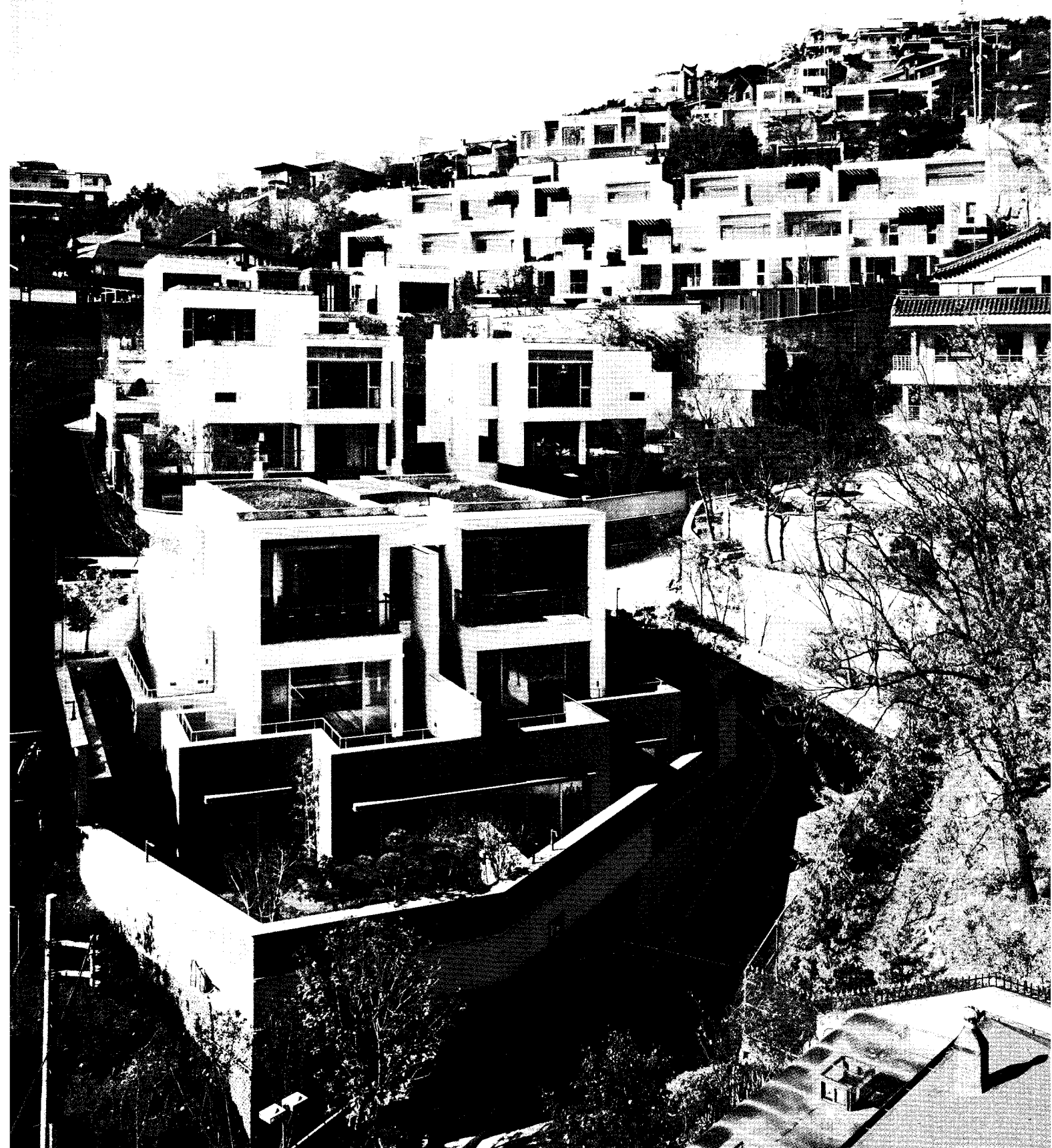


배치도



쌍용건설 평창동 타운하우스 오보에힐스 Oboeh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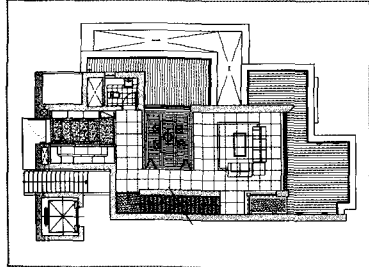
· 설계자 : 윤영건(주.푸름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쌍용건설(주) · 건축주 : (주)서림에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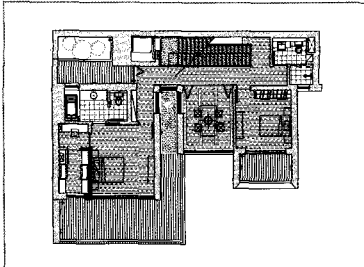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중로구 평창동 361-1번지 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도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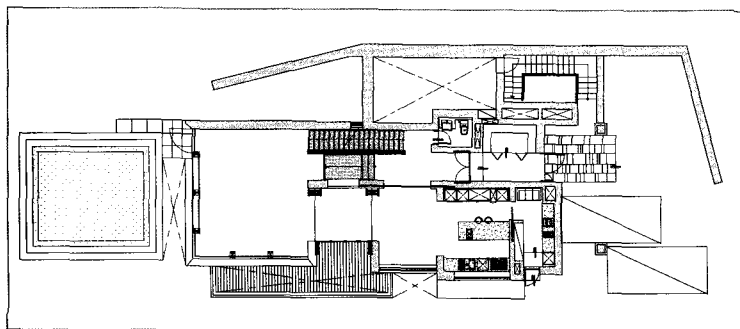
규모 지하 1~2층, 지상 2층,
총 4개 블록, 18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일부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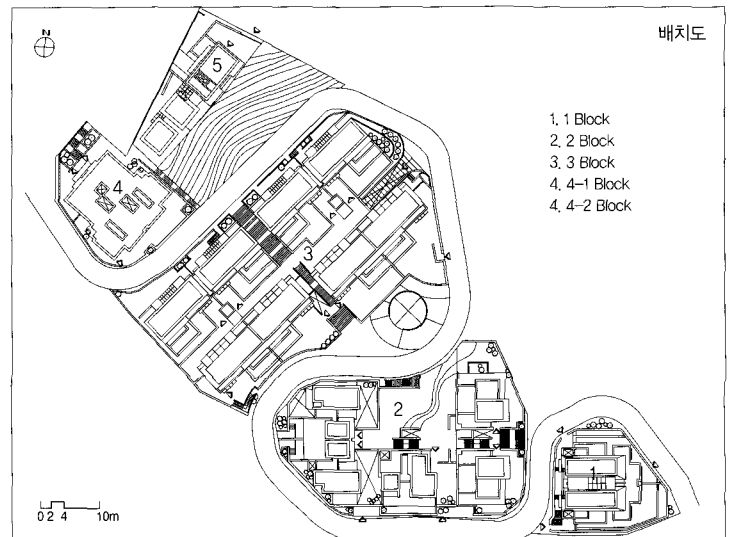
1block 1층 평면도



3block 1층 평면도



4-2block 1층 평면도



배치도

1. 1 Block
2. 2 Block
3. 3 Block
4. 4-1 Block
4. 4-2 Block

이곳은 서울에서도 아름다운 능선을 지닌 산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느낌과 산의 영기(靈氣) 때문인지 공기마저 무척 상쾌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하다. 현장에 서서 매우 가까운 경사지를 봤을 때, 나의 첫 인상은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이러한 주위지형으로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조형의 저층 공동주택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당혹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 경사지를 역으로 활용해 여러 층으로 연속되는 건축을 생각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공동주택지에 개개의 차고를 마련하는 일이었는데, 우선 설계적인 접근에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차와 사람을 위한 길을 고려할까하는 것부터 설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됐다. 실로 「길의 건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지면에 절개 면들이 만들어지고 사람과 차를 위한 길이 생긴다. 그리고 지층에 단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길의 높은 단차로 인해 생긴 옹벽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렇게 하여 새롭게 만든 지모(地貌)에 어떤 저층의 건축을 만들지가 과제였다.

주위환경과 땅의 영기(地靈)를 대변하는 하얀 상자형태가 중첩되는 건축. 압집의 옥상정원이 마치 나의 정원처럼 펼쳐질 수 있겠다는 계산 하에 옥상에 녹지를 계획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자연과 건축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단지 전체의 여백을 살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각각의 대지가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 때문에 획일화된 평면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이었지만 이러한 전제가 있었기에 더욱 주어진 환경에 녹을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할 수 있었다.

밖으로는 전체 단지의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각 세대 내부에서는 펼쳐진 주변 지형을 새로운 자연으로 끌어안기 위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각 세대가 제 각기 다른 곳에 개구부들이 생길수 밖에 없고 공간 구성도 각기 상이하다. 오보에힐스는 자연과 건축을 융화시키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큰 과제를 안겨주었던 프로젝트라 하겠다.

완성된 건축을 보면 불만도 없진 않지만 이 건축도 십년 후에는 조금은 세월을 입고, 자연에 물들어 투박스러움과 섬세함이 어우러지며 좋은 맛을 낼 것이라고 상상할 따름이다. ▣

